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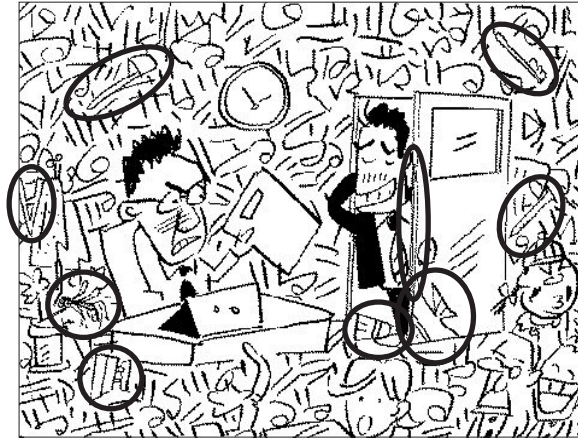
숨은그림찾기 <147>



찾아보세요 열대어, 담배피이프, 펜촉, 성냥개비, 아이스크림, 볼링핀, 가자, 새집, 다리미

나이

장수마을에 취재를 하러 간 기자가 그 마을 최고령자인 할머니와 인터뷰를 했다.
“장수의 비결이 뭐니까?”
“안 죽이니까 오래 살지.”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여섯 살밖에 안 먹었어.”
“네? 무슨 말씀이신지..”
“100살은 너무 무거워서 집에다 두고 다녀.”



지난주 정답

서툴룩, 다리미, 열대어, 못, 바늘, A자, 모기, 슬리퍼, 칫솔

그림 속에 숨겨져 있는 사물들을 찾아보세요. 찾은 사물을 그림에 표시한 후 매주 화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정답자를 추첨, 상품권(2만원)을 드립니다.
▲보내실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문매체부
▲당첨자: 조영선 <순천시 연향동> 박영숙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아하! 오늘이 바로 그날

김재규, 79년 10월26일 박정희 대통령 시해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쏘았다”

1979년 10월 26일 저녁 서울 종로구 궁정동 중앙정보부 안가(安家)에 총성이 울려 퍼졌다.

중앙정보부 부장 김재규가 쓴 총탄에 박정희 대통령과 경호실장 차지철이 쓰러졌고, 18년에 거친 독재정권이 총성과 함께 막을 내렸다.

1961년 5·16 군사정변을 주도, 1963년 12월 대통령 자리에 오른 박정희는 1972년 10월 유신을 선포하고 장기집권에 들어간다.

이후 우리나라는 중화항공업에 대한 무리한 투자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감압통

치와 독재적인 집권에 대한 좋지 않은 시선을 보내던 미국 카터 정부와의 마찰로 정치적 위기를 맞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유신체제 7년째인 1979년 10월 16일 부마민주항쟁이 발생했다. 10월 15일 부산대학에서 민주선언문이 배포되고, 16일 학생들의 주도로 대규모 반정부시위가 전개되었다.

이후 부산대에 임시 휴교 조치가 내려졌고 18일 0시 비상계엄이 선포되면서 공수부대가 폭력적인 진압에 나서 부상자가 속출했다.



1979년 12월 8일 육군본부 계엄 보통 군법회의 법정에서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 첫 공판이 열렸다.

하지만 폭력적인 진압에도 시위는 마산으로 확산됐고 정부는 20일 마산과 창원 위수령을 발동하는 등 공권력을 앞세워 폭력적으로 부마항쟁을 처리하려고 했다. 대내외적인 경제·정치적 위기 속에 부마항쟁 처리를 놓고 집권층의 내부 갈등이 고조됐다. 그리고 10월26일 중앙정보부 안가에서 열린 만찬에서 김재규는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하게 된다.

김재규의 행동을 대한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유신체제가 흔들리던 상황에서 강경노선을 주장하던 차지철의 의견에 힘이 실리면서 김재규가 위기를 느꼈다는 주장이 가장 유력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우발적인 살인이라는 주장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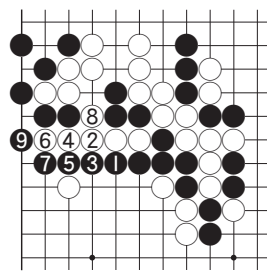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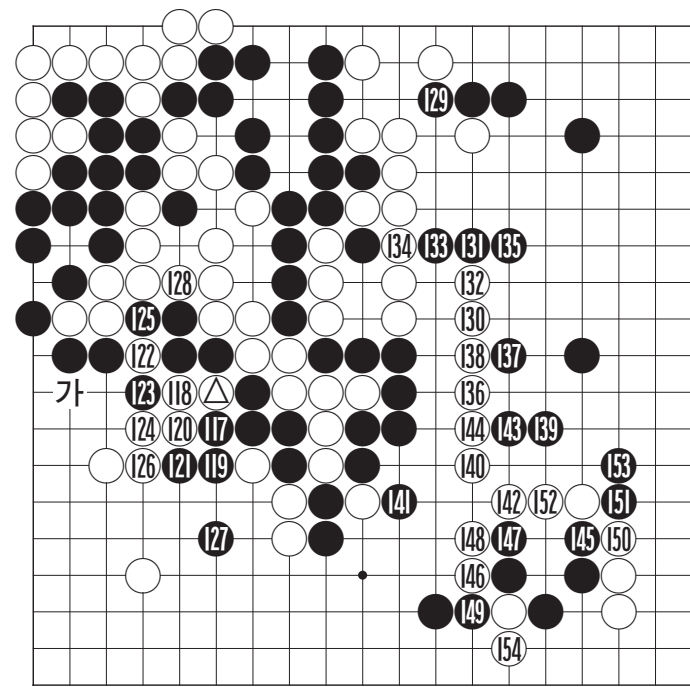
한편 당시 계엄 합동수사본부장을 맡은 전두환은 10·26을 김재규 중정부장이 계획적으로 벌인 시해사건이라고 발표했고, 김재규는 내란 목적살인 및 내란미수죄로 사형선고를 받았다. ‘살인마’와 ‘정치범’이라는 엇갈린 평가 속에 김재규는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쏘았다.’라는 말을 남기고 1980년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이 사건으로 유신체제가 무너졌으면 12·12 군사 쿠데타가 발발해 전두환의 군사정권이 수립됐다. /김여울기자 wool@

제2회 광주바둑협회장배

타협할 수 있었던 수

중고등부 결승전 7보 (117~154)

白 권재규 4단 黑 김영환 4단 (문성중 3) (금구중 1)



<참고도>

김영환군은 중앙을 끊어갈 때부터 백을 잡아야만 한다는 고정관념에 얽매어 타협할 생각도 하지 않고 흑 117로 나가더니 119로 꼬부렀는데 이 수가 마지막 패착이 되었다.

대마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 끝에 권재규군이 백 120로 끊어낸 것이 흑의 뒤통수를 때린 결정타가 되었다.

이 수로는 ‘참고도’의 흑 1로 몰고 9가지 위쪽의 흑 석점을 버리고 연결하는 비상수단이 있었다. 이랬으면 좌화귀의 백 집도 다쳐 해볼만 했던 것이다.

백 120으로 꼬부린 수가 선수가 되어 결국 128의 단수에 흑이 이를 수가 없게 되었다. 만약 잇는다면 백이 ‘가’로 붙어 흑축수가 된다. 잡으려 갔던 흑 대마가 거꾸로 비명횡사하자 이성을 잃은 김영환군은 131부터 중앙 백 대마에 총공세를 폈으나 이 대마는 죽을 돌이 아니다. 백 154로 상항 끝. 권재규군의 승리가 결정되었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대한주변중사광주전남지역본부

EL DORADO 엘도라도리조트

知天命이 되는 오늘의 운세 10월 22일(음 9월 24일 乙未)

Table with 12 rows representing zodiac signs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and their corresponding fortune predictions for the day.

www.cafe.daum.net/sajoo114 ☎011-632-6121

Advertisement for DermaPlast skin care products, featuring a woman's face and the text '운수는 나빠도 상처는 흉터없이!!'.

굿모닝 잉글리쉬 <1172>

How do you want your burger? 버거를 어떻게 해 드릴까요?

A: I'll take a hamburger.
B: How do you want your burger?
A: Medium well.
B: Okay, I'll have it right out.

A: 햄버거 하나 주세요.
B: 버거를 어떻게 해 드릴까요?
A: 보통으로요.
B: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 burger : 햄버거에 사용되는 빵
* have out : 가져오다, 내오다
* right : 지금 바로 (=immediately)

* 옷을 어떻게 세탁해 드릴까요?
= How do you want the clothes to be washed?

<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

오하오우 니혼고 <1172>

花冷えが続くそうだ 꽃샘 추위가 계속된대

A: 3月(げつ)が(つ)なのに寒(かん)いね。
B: 天気予報(てんきよほう)によると 花冷(はなひや)えが(続)く(ぞく)し(よ)く(よ)く(ぞ)うだ。

A: 寒(かん)いのは これで十分(じゅうぶん)!! 早(はや)く(春)春(しゅん)が(来)る(き)たら いいな!

A: 3월인데도 추워.
B: 일기예보에 의하면 꽃샘추위가 계속된대.

A: 추운 건 이걸로도 충분해!! 빨리 봄이 오면 좋을 텐데.

* 天気予報(てんきよほう) = 일기예보
* 続く(つづく) = 계속되다. 이어지다.
* 早い(はやい) = 빠르다. 빨리

<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
http://kglobal.wo.to ☎ 228-2545

니하오 쑹구위 <249>

你表姐会说英语吗? 사촌누나는 영어를 할 줄 압니까?

A: 你表姐会说英语吗?
nǐ biǎojiě huì shuō yīngyǔ ma
니비야오지(你表姐)가 영어를 할 줄 압니까?

B: 会。她英语很好。
huì tā yīngyǔ hěn hǎo
네이(你)의 영어는 아주 좋아.

A: 她会和我们这里的话吗?
tā huì shuō wǒmen zhèlǐ de huà ma
타(她)가 우리(我)들의 말을 할 줄 압니까?

B: 不会。
bú huì
아니요.

A: 당신의 사촌누나는 영어를 할 줄 압니까?
B: 아니요. 그녀의 영어 실력은 매우 좋습니다.
A: 그녀는 우리나라 말을 할 줄 압니까?
B: 할 줄 압니다.

话 [huà] 말, 언어
表姐 [biǎojiě] 사촌누나

<광주중국어학원(상무지구 금호대우A 앞)>
☎ 383-1605

한자 이야기 <889>

行雲流水(행운유수) 갈 행, 구름 운, 흐를 유, 물 수

행운유수(行雲流水)는 떠가는 구름과 흐르는 물이라는 뜻으로, 일정한 거처 없이 떠도는 생활을 비유한다. 또 구름과 물은 틀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각각각색(各樣各色)으로 늘 변화하는 현상을 이르기기도 한다.

이 말은 송대(宋代)의 제일가는 시인으로 불리는 소식(蘇軾, 1036~1101)이 사민사(謝民師)라는 친구에게 보낸 답장에서 유래한다. 친구가 보내온 작품을 감상하고, 그 친구의 시에 대한 작품평이라고 할 수 있다.

“그대의 글은 마치 구름이 떠가고 물이 흘러가는 듯(行雲流水) 처음부터 정해진 바탕이 없다. 그러나 언제고 가야할 곳으로 가고, 멈추어야 할 곳에서 멈추는구나.”(答謝民師書)

실제로 소식은 지방관이 되어 여러 지방을 떠돌면서 여러 계층의 사람들을 만나고, 그것을 작품으로 남겨놓았다. 따라서 ‘송사(宋史)’의 소식전(蘇軾傳)에서는 위의 자세를 소식의 작풍(作風)으로 소개하였을 정도이다. 그것은 그가 세상의 고난을 만나 좌절하거나 비탄에 잠기기도, 인생의 과정으로 관조(觀照)하는 시작(詩作) 태도를 가졌기 때문일 것이다.

<한여원(韓孝嫺)>
조선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 230-7353